

5·18 33주년 현실정치 참여로 보폭 넓히기

■집행위, 기념행사 발전방향 잠정안 논의

제주 강정·쌍용차 문제 등 사회현안 이슈화

순수·역사성 퇴색 정치적 변질 우려 목소리

올해 치러질 5·18 33주년 기념행사는 기존 행사와 달리 정치적 성향을 띠 것으로 보인다.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제주 강정마을·용산참사 문제 등 굵직한 사회현안 및 정국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5·18 기념행사가 항쟁의 역사성과 순수성을 감안해 정치적인

행태를 극도로 배제한 상태에서 치러졌다는 점에서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특히 여태껏 5·18 행사는 항쟁의 전국화 차원에서 부득이 정치색을 띠더라도 온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이슈를 다루는 평범한 수준에 머물렀던 점을 감안하면 노동 및 시국 관련 내용을 담은 이번 행사의 경우 정

치적 성향이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5·18 민중항쟁 33주년 기념행사위원회 집행위원회'(이하 33주년 집행위)에 따르면 이날 광주 서구 차평동 5·18 기념재단에서 행사위원회 조직 구성(안) 및 인선(안) 등에 대해 1차 논의한 뒤, 기념행사 발전방향(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기념행사 발전방향에 제시된 슬로건 기준엔 ▲박근혜 정부에 대한 기대와 우려 ▲요동치는 동북아 정세와 5·18 정신 재조명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시국에 대한 위로와 치유 등 연대의 장으로써 5·18 정신을 구현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집행위는 다음달 4일까지 슬로건을 확정짓는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행사의 목표는 시국과 관련된 내용(현실 의제)을 적극 반영하는 물론 민주화세력의 재집결을 통해 5월 광주를 위로하고, 진보민주개혁세력의 재도와 계기로 삼자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집행위는 시국 관련자(해고자·유족·주민 등)를 초청해 확대와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내용과 대선 패배 이후 진보민주개혁세력의 위로와 연대·과제 모색을 위한 5월 한마당 행사를 열자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집행위는 앞으로 추가 회의를 통해 기념행사 발전방향(안)을 조금씩 수정한 뒤, 최종안을 확정짓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5·18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우려해 일부 5월 관련 단체 인사들은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각종 시국 현안이 맞물리면서 자칫 행사가 정치적으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5월 관련단체 관계자는 "5·18 정신이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 다만, 5·18이 우리들만의 행사는 아닌 만큼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행사가 치러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수정된 뒤, 최종안을 확정짓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5·18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우려해 일부 5월 관련 단체 인사들은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각종 시국 현안이 맞물리면서 자칫 행사가 정치적으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5월 관련단체 관계자는 "5·18 정신이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 다만, 5·18이 우리들만의 행사는 아닌 만큼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행사가 치러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노인·중증 장애인 대상 의료 검진
26일 광주 서구 농성초등학교 강당에서 노인·중증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통합자원봉사'가 진행된 가운데 행사장을 찾은 주민들이 의료검진을 받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학생생활실태, 학교엔 비밀?

시교육청, 초·중·고생 7000명 설문...조사결과 안 알려

학폭·보충수업 만족도 등 부정적 내용 숨기기 의혹도

광주시교육청이 수 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학생생활 실태조사를 하고도 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2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광주지역 초·중·고 74개 학교 7005명을 상대로 '광주 학생생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는 이 지역 학생들의 가족·친구·학교 등 다양한 환경 요인의 특징과 변화를 파악해 광주교육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목적이다.

광주시교육청은 경쟁 입찰을 통해 광주여성재단을 용역수행자로 선정했으며, 설문조사는 면접원이 직접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질문지를 나눠

주고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 영역은 가정생활, 건강, 학교 생활, 방과후 활동, 안전, 정보화 및 여가, 사회참여와 지역사회활동, 진로 적성 등 11가지 분야를 조사했다.

특히 교육과정이나 보충수업 만족도, 가정폭력 피해 실태, 학교폭력 피해·가해 경험, 성폭력 사례, 가출 경험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 관심을 모았다.

광주시교육청은 과거 일부 한정된 분야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기도 했지만, 이처럼 학생생활 전반에 관해 실시되는 조사를 한 적은 없었다. 실태조사에는 5000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광주시교육청은 이처럼 대규모 인력과 예산을 들여 조사한 운영결과를 지난해 11월 전달받아 보고서로 50권을 제작해 일부에 배포했다. 정작 학생들이 생활하는 일선 학교에는 배포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광주시교육청 안팎에서는 일부 부정적인 조사결과를 숨기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광주교육 관계자는 "학생들의 학교 안팎 생활실태를 잘 알 수 있는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면 일선 학교와 공유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시교육청이 왜 이런 식으로 숨기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설문조사 결과를 고의로 숨기려고 했던 것은 아니며 일선 부서와 학교에서 활용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여순사건 유족, 국가상대 첫 손해 소송

청구 배상액 희생자 본인 1억·직계 방계 가족당 수천만원

여순사건 유족들이 사건 발생 64년 만에 국가를 상대로 피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유족들의 집단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순사건 여수유족회는 28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국가를 상대로 여순사건 손해배상 소송을 제출한다고 26일 밝혔다.

유족 263명은 소장에서 1948년 발생한 여순사건은 당시 국가가 적법절차, 재판받을 권리를 위반하고 생명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고 침해해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했고 유족에게도 재산·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줬다고 덧붙였다.

유족들은 특히 배상액은 국가의 이런 불법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일반적인 의미의 손해배상액을 뛰어넘는 범위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청구 배상액은 희생자 본인 1억원, 직계 방계 가족당 수천만원 등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부터 이번 소송 참여자를 모집해온 유족회는 추후 이번 소송에서 빠진 유족들을 포함 2차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다.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해마루의 장완의 변호사가 선정됐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27분 해질 18시 50분 달돋이 18시 51분 달지기 05시 57분

포근한 하루
고기압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다.

구분	기온	강수량
광주	맑음 2/19℃	
목포	맑음 3/14℃	
여수	맑음 6/14℃	
나주	맑음 1/19℃	
완도	맑음 3/16℃	
구례	맑음 1/19℃	
강진	맑음 1/17℃	
해남	맑음 1/18℃	
장흥	맑음 1/18℃	
순천	맑음 1/18℃	
영광	맑음 1/15℃	
진도	맑음 2/15℃	
전주	맑음 1/18℃	
군산	맑음 0/14℃	
남원	맑음 -1/18℃	
옥산도	맑음 4/10℃	

구분	종량	파고	체감온도	감기지수	노출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풍 0.5m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풍 0.5m	0.5~1.0m	관심	보통	보통

구분	종량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풍 0.5m	0.5~1.0m	목포 01:38 14:18	07:20 19:37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풍 0.5m	0.5~1.0m	여수 09:09 21:30	02:54 15:07

◇주간날씨 기상내전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8(목)	29(금)	30(토)	31(일)	4/1(월)	2(화)
날씨	☀	☀	☀	☀	☀	☀
최저/최고	5/19	3/15	3/17	5/19	6/13	4/13

“남녀공학 여고생 수능성적 낮아”

일반 여고보다...이성교제·공부시간 부족 탓

남녀공학 고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의 수능성적이 여학교 학생들보다 낮을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공학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내신성적에 유리하다는 통념과 대조되는 연구 결과여서 눈길을 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희삼 연구원은 28일 '학업성취도 분석은 초중등교육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보고서에서 “남녀공학 재학이 수능점수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국어, 영어, 수학에서 모두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005년 당시 전국 150개 중학교의 1학년생(1992년생) 6908명을 2023년까지 매년 추적조사하는 한국교육종단연구를 분석한 결과다.

보고서로는 남녀공학 여학생은 수능에서 국어 4.8점, 영어 6.3점, 수학 4.7점씩 여학교 학생보

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 남녀공학 남학생은 국어 1.1점, 영어 1.2점, 수학 1.7점씩 남학교 학생보다 낮게 받아 여학생보다 격차가 작았다.

원인으로는 여가활동의 성적이 지적됐다. 휴대전화 통화·문자, 컴퓨터 채팅·메신저, 개인 홈페이지·블로그관리 등 학습과 관련 없고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활동 시간이 남녀공학 학생에서 더 길었다. 공부시간도 부족했다. 남녀공학 학생들은 모든 과목의 자습시간이 단선학교보다 짧았다.

중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에 선 학생들이 교사의 열성과 자질을 높게 평가할수록 해당 과목의 성적이 높았고 사교육비 지출액도 적었다. 2010년 초등 4학년, 중등 1학년, 고등 1학년생이었던 서울 지역 학생들의 표본을 2011년까지 조사한 결과다. /연뉴스

눈이 피로하면 온몸이 피로하다!

눈은 간장의기능과 연관이 있다. 눈의 과로한 환경과 더불어 정신적인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뜻밖의 바를 이루지 못하거나 고뇌와 분노로 말미암아 간기능이 울결되어 화(火)로 변하면 그 화기가 인체 상부 즉 머리와 눈으로 펼쳐 눈이 침침하고 아득할 정도로 피로해진다. 이러한 증상을 **안구건조**와 한다. 말기상황에 가까워지면 **눈에 통증**을 느끼며 눈을 잘 뜰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인다라한의원 광천사거리 광천파출소 맞은편 대원한의원회 의료광고심의과 제120106-중-0819호 (광주) 광주점 062-368-5075

안구건조, 눈피로, 만성피로, 해결책을 찾다!

눈이 건조하고 피곤한 눈피로와 해결법 | 스트레스와 과로에서 오는 만성피로 증상과 해결법

눈의 피로의 다양한 증상들

- 책이나 가까운 물체를 잠시만 바라봐도 눈이 침침하고 머리가 무거워진다
- 눈이 몹시 짝짝하고 눈물이 아프다
- 오후만 되면 눈이 팽팽해지고 눈앞이 뿌옇다
- 다른사람 눈을 정면으로 쳐다보기 어렵다
- 마음이 급하고 쉽게 화를 낸다
- 입이 쓰거나 마르고 가끔 윗구리가 걸리거나 아프다

Home Doctor 시리즈 출간 전국서점 판매중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호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주류서비스 성인인원, 평일방문 고객께 맥주 or 소주 1병 와인 or 생맥주 1잔 **1석 1박 1일**

가격안내 (미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중학생이상)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29,000원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중합버스터미널 2층

24시 유스퀘어사우나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인터넷 · 안마기 · 세신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